

# 중국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Urban Construction Archives Management Business of China

한 미 경(Mi-Kyung Han)\*

### 목 차

- |                  |                       |
|------------------|-----------------------|
| 1. 서론            | 3. 1 도시건설 기록물관리사업의 배경 |
| 2. 도시건설 당안과 당안관  | 3. 2 도시건설 기록물관리사업의 전개 |
| 2. 1 기본건설 당안     | 3. 3 도시건설 기록물관리사업의 성과 |
| 2. 2 도시건설 당안     | 4. 북경시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   |
| 2. 3 도시건설 당안관    | 5. 결론 및 제언            |
| 3.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 |                       |

### 초 록

본고는 중국의 20세기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12개 항목의 기본건설 당안과 11개 부문의 도시건설 당안을 알아보았고, 도시건설 당안관의 당안 수집방법, 임무, 서비스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은 중대형의 도시건설계획과 마오쩌둥의 도시건설 기록물 처리에 대한 지시에 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각급 각종의 당안관 3,816개관이 건립되었으며, 1960년대에 42곳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던 도시건설 당안관은 전국 662개의 도시에 모두 건립되었다. 한편 현재 도시건설 당안관의 인적자원의 경우 전체 인적자원 대비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를 70~80%, 중급 기술직을 60~70%로 배치하여 전체 인적자원 대비 전문 인적자원이 최소 60% 이상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와 비율은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사업을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북경시의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상황을 살펴 본 결과 전문적인 도시건설 당안관 외에 해당 지역의 당안관에도 도시건설 당안들이 수집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 ABSTRACTS

This thesis concerns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of China in the 20th century. 12 items of state-level construction archives, 11 categories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was initially studied. And studies on data collection method, obligations, and range of service, etc.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center were conducted as well.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was aggressively pursued in terms of national policy, based on the state plan to construct medium-sized and large cities and Mao ZeDong(毛澤東)'s direction regarding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As a result, there happened to be various levels and types of 3,186 archive centers, as of 2003. And the archives centers of urban construction have been established in 662 cities all over China so far, while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construction archives centers was pursued only in 42 cities in 1960s. Another point to note is that staff members of junior college or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account for 70% - 80% of overall human resources of the archives center of urban construction, while 60 - 70% of them are technical level. This makes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represent at least 60% of the total human resources of the centers. This is a result of effort of China to enhance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And through the study on the situation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business in Beijing(北京), it was learned that urban construction archives are being collected and managed in archives centers of the respective areas as well as in professional archives centers of urban construction. Some suggestions were also made regarding what kind of direction Korea should take to pursue the business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 management.

키워드: 도시건설, 도시건설당안, 도시건설당안관, 중국  
China, Urban Construction, Urban Construction Archives(Cheng Jian Dang An 城建檔案),  
The Archives Center of Urban Construction(Cheng Jian Dang An Gwan 城建檔案館)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논문접수일자 2003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12월 16일

## 1. 서론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이 제정 공포되고 그해 12월 본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과 본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이 각각 발표되었다. 그후로 끊임없이 기록물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사례들도 소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와 러시아 연방 기록관리청이 2000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러 기록보존 교류협력 약정'을 살펴보면, 기록과학 및 기록관리 행정경험 교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2001년 8월 8일 배포한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 흩어진 한국관련 기록물의 수집, 관리, 출판에 관한 사업 추진 검토 및 기록물관리제도과 학술이론에 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과의 기록보존 교류협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제도 및 학술이론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각국의 기록물 관리제도 및 선진적인 사업의 이해가 절실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 후 본격적으로 기록물 관리사업<sup>1)</sup>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1950년대부터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의 도시건설(城市建設)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부터 소규모 도시건설(小城鎮建設)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 또한 착수하였다. 이러한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사업은 1952년 마오쩌둥(毛澤東)이 도시건설관련 기록물의 일괄적 관리의 중요성 지적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20세기 중국의 기록물 관리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이 건국 후 1950년대에서부터 20세기 후반기에 전국에 중대형 도시를 건설하면서 병행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건설 기록물관리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하여 우선 도시건설 당안<sup>2)</sup>의 상위개념인 기본건설 당안과 도시건설 당안의 범위, 도시건설 당안관의 당안 수집방법, 임무 및 서비스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배경, 시대별 전개 및 성과 그리고 북경시

- 1)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중국의 각급 기관은 기록물 관리업무를 비서업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였으나,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기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80년 역사기록물의 개방방침 제출, 기록물 관리업무의 확대, 당안관 건설의 촉진에 이어 1986년 <당안사업발전칠오계획(檔案事業發展七五規劃(1986~1990) 일명 '칠오계획')>이 제출되었다. 칠오계획은 개혁, 충실, 공고, 제고라는 기록물관리 사업 발전 방침으로 이후 중국 기록물관리사업 전개 및 발전의 반석이 되었으며, 그 결과 중앙에서 지방까지 기록물 행정관리 체제가 형성되고, 각급각종의 당안관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 2) 영어로 'records' 또는 'archives'라고 하며, 한글로 '기록물' 또는 '기록자료',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라고도 칭하였던 것에 대한 중국어 상응어는 '당안(檔案)'이라고 한다. 물론 '당안자료', '당안재료' 또는 '당안문건' 등과 같은 용어가 종종 문헌에 등장하기도 하며, '원찌엔(文件)' 또는 '원수(文書)'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당안'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용어인 '기록물'을 사용하기로 하며, 고유명사의 경우에 한하여 '당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도시건설 당안과 당안관

우선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실제적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건설 당안과 도시건설 당안 그리고 도시건설 당안관의 제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2.1 기본건설 당안

도시건설 당안의 상위개념으로 ‘기본건설 당안(基建檔案)’이 있다. ‘기본건설’이란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있어서 고정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점적 건설을 이르는 것으로서 기본건설당안은 도시건설을 포함한 기본건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사용, 보수 활동 중 생성 및 당안화된 과학기술 문건재료를 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당안국<sup>3)</sup>이 연합 개최한 ‘중점건설항목 당안자료 업무 좌담회’에서 토론된 기본건설의 당안 범위(國家檔案局三處, 1987, 86-93)를 살펴보면, 종합적 문건, 실행가능성 연구서 및 임무서, 측량자료, 설계 문건, 건설시공 문건, 준공문건, 생산기술비준 및 시험생산자료, 공예 및 설비자료, 대외문건, 재무 및 기자재관리자료, 기타자료 및 관련 과학적 연구부분의 12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종 공사부문에서 생성되는 특수건설항목관련 문건의 경우 별도의 특수부분 당안으로 추가 처리하며, 또한 일부는 모든 건설에서 생성되는 당안은 아니므로 공사규모와 공사건설의 내용에 따라 그 범위를 결정하며, 본 순서대로 분류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본 12부문의 기본건설당안은 도시건설당안의 중요 구성요소이자 도시건설당안관의 기본적인 수집 및 관리범위에 포함된다.

### 2.2 도시건설 당안

도시건설 당안(城市建設檔案, 약칭 城建檔案 또는 城檔)이란 도시행정 구획 범위 내에서 도시건설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활동 중 발생하는 참고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설계도, 도표, 문자자료, 계산자료, 모형, 샘플, 사진, 필름, 녹음, 영상자료 등을 당안으로 귀속시킨 과학기술 문건재료를 말한다(來新夏, 1991, 53).

일반적으로 당안의 유형은 생성자, 성격, 체제, 기록방식, 소속시기, 소유권형식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문서당안’, ‘과학기술당안(科技檔案)’ 또는 ‘전문당안(專業檔案)’으로 대별하기도 하며, 다시 ‘사회관리당안’과 ‘과학기술당안’으로 분류한다(한미경, 1996, 286). 도시건설 당안의 경우 기본적

3) 1953년 9월 8일 당시 중앙사무청비서처(中央辦公廳秘書處)에서 당, 정, 군 각 계통에 기록물 관리사업 지도기구 설치를 제안, 1955년 11월 <국가당안국조직간칙(國家檔案局組織簡則)> 규정에 따라 국무원 직속의 국가 기록물 관리사업을 주관하는 최고행정관리기구로 탄생하였다. 국가당안국의 임무는 국가 기록물의 통일관리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국가급 기록물관리기구의 건립계획, 건설계획 및 지도, 국가 기록물의 보존가치 및 보관기한표준의 연구 및 심사 그리고 국가 기록물의 파괴문제 관련 감독 및 심의 등을 책임지는 것이다.

으로 '과학기술당안' 이하 '경제기술당안'에 분류되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도시건설 당안의 종류로는 총 11개부문이 있으며, 다음의 <표 1>과 같다(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1993, 30; 國家檔案局三處, 1987, 86-92). <표 1>에 의하면 도시건설 당안은 크게 계획, 건설, 관리 및 연구의 네 가지 성격으로 분류되며 도시의 자연면모와 도시건축물, 구축물, 지상물과 지하관선 등 각종 건설관련 사실기록물 외에 행정, 공공시설, 교통, 조경, 환경보호 및 관련연구 등에 관한 해당도시관련 기록물로 분류된다. 이러한 도시건설 당안은 도시건설의 계획, 건설, 관리 및 보수유지 등 각 단계 업무의 근거자료가 되며 도시건설 당안관의 필수적인 수집대상이다.

### 2.3 도시건설 당안관

도시건설 당안관(城市建設檔案館, 약칭 城建檔案館 또는 城館)은 해당도시건설 관련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기지이며, 동시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이용, 유통 및 검색의 정보센터이다.(來新夏, 1991, 53). 즉 각 도시를 기본단위로 하는 전문분야 기록물 관리기관이다.

1992년 『中國檔案年鑑』에 의하면 당안관의 유형은 설치단위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1단계(부록 1 참조)는 종합, 전문 또는 부문 당안관이며, 제2단계(부록 2 참조)는 각 성 및 자치구의 직할시 당안관으로서 성급당안관에 해당된다. 그외 제3단계는 각 성과 자치구 하위 행정 단위인 각 縣 및 市の 당안관으로서 현급당안관에 해당된다. 한편

<표 1> 도시건설 당안의 종류

성격	종류	내용
계획단계당안	① 도시계획 및 건설의 기초 자료 ② 도시측량당안 ③ 도시계획당안	① 신청보고서, 비준문건, 회의자료, 보상문건 등 ② 도시경제자료, 인구자료, 지하자원자료, 지형과 지모의 측량문건, 지형도, 수문지질 및 공사지질자료, 지진과 기상 관련 자료 등 ③ 지명자료, 도시역사 연혁자료, 도시총체계획, 상세계획 및 각종 전문 계획관련 문건 등
건설단계당안	④ 도시건설관리 당안	④ 도시건설 방침과 정책, 법규문건, 토지 수용 및 양도 문건, 건축관리와 부동산관리 문건 등
관리단계당안	⑤ 시의 행정당안 ⑥ 공공시설당안 ⑦ 교통운수시설건설당안 ⑧ 공업건축 및 민간건축당안 ⑨ 조경녹화당안 ⑩ 환경보호 및 자치방범당안	⑤ 도로, 교량, 배수로, 터널, 배수 및 방공관련 문건 등 ⑥ 급수, 공기공급, 열공급, 전신, 도시조명, 대중교통 관련 문건 등 ⑦ 철도, 도로, 수운, 항공관련 문건 등 ⑧ 공장, 광산, 발전소관련 문건 등 ⑨ 풍경, 공원, 명승지관련 문건 등 ⑩ 홍수예방, 화재예방, 내진, 방범시설관련 문건 등
연구단계당안	⑪ 도시건설관련 과학적 연구 당안	⑪ 주제보고서, 위탁서, 실험기록, 국외시찰관련 문건 등

보관되는 당안의 성격, 규모에 따라 국가급당안관, 지방당안관, 전문(專業)당안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가급당안관은 중앙당안관<sup>4)</sup> 및 제일역사당안관과 제이역사당안관으로 분류되는 중앙 기록물 관리기관을 이른다. 지방당안관의 경우 성·시·현급의 당안관을 말하며, 전문당안관의 경우 중앙 각급기관과 각부위원회 및 전문분야관련 역사당안 및 현행당안 등을 관리하는 곳을 이른다(鄭會欣, 1991, 119-121). 따라서 도시건설 당안관은 각 설치단위에 따라 성급, 현급의 당안관이자 지방당안관 등으로 분류되며, 한편 성격에 의하면 전문당안관에 분류된다.

도시건설 당안관은 설치단위에 따라 해당 도시의 인민정부에 예속되고 도시건설 행정관리 부문이 책임관리하며, 업무상 동급의 당안 행정관리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중국은 <과학기술당안업무조례> 규정에 따라 중대형 도시에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전문분야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來新華, 1991, 53). 도시계획 구역 범위 내에서 건설활동을 전개하는 기관, 부대, 학교, 기업, 사업단위 등 부문은 모두 상술한 11개 부문의 도시건설 당안을 해당 도시건설 당안관에 무상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그외 도시건설 당안의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寥龍波, 1999b, 264).

하나. 제도에 의한 수집. 자체의 도시건설 당안 수집제도를 세워 수집범위, 수집시기 및 질적 양적수준을 규정하여 각 관련단위가 규

정에 따라 당안을 송부토록 한다.

둘. 방문수집. 필요할 때 관련부문에 주동적으로 방문하여 수집한다.

셋. 대중대상수집. 관련 당안은 각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산재되어 있으므로 각종 대중을 대상으로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넷. 사후보충제도에 의한 수집. 이미 입수되었으나 기존의 당안에 변화가 생겼다면 기존 당안의 이관처로 부터 주동적으로 사후 보충당안 및 변경된 당안을 수집토록 한다.

도시건설 당안관은 중대형의 도시건설사업의 진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업무를 차질없이 하여 도시건설 기록물의 보존, 이용, 검색, 유통의 서비스 센터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寥龍波, 1999b, 262-3;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1993, 29-30). <표 2>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건설 당안관은 해당도시의 관련 당안을 수집, 조직 및 관리 그리고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의 기본적 임무와 편찬, 검사, 감사, 교육 및 교류센터 등의 적극적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중국은 지하관선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집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해당도시의 각 계통과 부문, 각종 인민을 위해 도시건설 당안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國家檔案局三處, 1987, 164-165). <표 3>에 의하

4) 중앙당안관의 경우 1956년 4월 중앙과 省(市) 대표 당안관을 건설하여 역사당안 및 각 기관에 축적된 기록물을 집중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1959년 10월 국무원 직속의 과학문화사업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본 기구는 이후 국가당안국과 1993년 12월 하나의 기구로 합병되어 전국 기록물 관리사업 행정관리와 중앙의 기록물 보관 및 이용이라는 두 가지 직능을 수행하는 국무원의 직속기구가 되었다.

〈표 2〉 도시건설 당안관의 임무

성격	임무	내용
기본적 임무	수집	도시계획 구획범위 내에서 본 도시에 필요한 영구 및 장기보관의 도시건설 기록물을 접수한다. 특히 음향 및 영상자료에 대한 기록물 접수 및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조직 및 관리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정리, 분류, 배가 등 조직 및 관리 업무를 실행한다.
	이용 및 서비스	접수한 기록물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도시의 각종 업무를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극적 임무	편찬	도시의 계획, 건설, 관리 및 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편찬업무를 수행한다.
	검사	도시 각 건설부문이 반드시 도시건설 당안관에 이관해야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검사 및 지도를 실시한다.
	감사	건설공사의 준공 검사에 참가한다.
	규정제정 및 등록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법규, 세칙, 기술표준 및 업무규범의 초안을 제정하고 유관부문에 등록한다.
	기록물 등급 결정	독립 혹은 협력의 당안 행정관리 부문 중에서 도시건설 계통상의 각 단위의 기록물의 등급을 결정한다.
	교육 및 교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 전문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전체 시의 경험을 상호 교류한다.
	지하시설 기록물 관리	전체 시의 관선 및 지하시설 현황자료의 수집, 정리, 편집 및 종합업무에 참가하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 지하시설에 대한 기록물을 건립한다.

면 도시건설 당안관은 해당지역의 도시건설 각 단계에 해당하는 계획, 건설, 관리를 위한 서비스 외에도 부동산권, 기업관리, 과학적 연구, 사지 및 방지편찬 및 국방건설 등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서비스, 국방과 외교 등 국가를 위한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시건설 당안관은 해당도시 및 지역을 위하여 대내외를 대상으로 제반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지방당안관이라 할 수 있다.

### 3.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

이상으로 살펴본 기본건설 당안과 도시건설 당안을 전문적으로 수집 관리 이용토록 하는

도시건설 당안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부터 중대형 도시건설계획과 병행한 국가적 차원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에 의하여 이룩한 실체이다. 여기에서는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배경, 전개, 성과 및 북경시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1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배경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배경은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한 중대형의 도시건설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국가 성립후 대규모 경제발전계획<sup>5)</sup>에 따라 중대형 도시건설을 계획하였으며,

〈표 3〉 도시건설 당안관의 서비스의 범위

성격	서비스	내용	실례
도시건설관련서비스	도시계획을 위한 서비스	해당 지역 도시의 총체적 계획, 분할계획 및 교외촌락 계획 시 관련 당안과 자료를 제공	도시계획을 위한 전람회에 縣境圖, 省城圖, 區地形圖, 시기별계획도, 건설발전도표 등을 제공
	도시건설을 위한 서비스	택지, 도로건설, 교량건설, 전기 배관소 건설을 위해 관련 당안과 자료를 제공	각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역대 수문 및 기상자료, 홍수예방 및 배수계획자료, 체신관선 상황, 횡단도면, 지질도, 수위상황 등의 기록물 제공을 제공
	도시관리를 위한 서비스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적 연구 및 관련 법규 제정 중 필요한 관련 당안과 자료를 제공	역대현황도, 각 시기별 계획도, 경제 및 인구자료, 역대 토지수용 수치자료 등
대내서비스	① 도시 부동산권 분규 해결을 위한 서비스	① 풍치지구와 地界 문제관련 분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당안 및 자료 제공	① 분규사건 해결을 위한 해당지역의 토지계획당시의 당안이나 역대 근거자료 제공
	② 기업관리를 위한 서비스	② 도시건설 계통 시의 행정, 부동산, 수도, 전기 등 각종 전문당안관(실)과 협력하 여기업건설을 위한 택지 봉사 외에도 사 후관리를 위한 봉사 제공	② 해당 기업관련 각종 수치자료, 생산관리, 재무관리, 운수관리 및 원재료의 소모관리, 통계자료 등을 휘편하여 제공
	③ 과학적 연구를 위한 서비스	③ 환경보호, 지진예보, 수문, 지질, 기상 등 과기연구에 관련되는 수치자료 및 근거 자료 제공	③ 환경보호연구소의 환경오염관련 종합적 예방 및 관리연구에 대한 해당 도시의 하수도자료, 유실 빗물 및 배수량 측량관련 수치자료 제공
	④ 史志 편찬을 위한 서비스	④ 각 부문에서 사지 또는 지방지를 편찬 할 때 관련 당안과 자료 제공	④ 특히 해당도시의 역대 발전관련 수치자료, 건설 정책 및 규정, 기본건설항목의 착공 및 준공관련 자료 제공
	⑤ 국방 건설을 위한 서비스	⑤ 방공로 및 방공교량의 응급보수 계획 및 급수계획 등 국방관련 당안 및 자료 제공	⑤ 관련 수치자료와 구체적 지점 및 역대 상태 등에 대한 당안을 제공
대외서비스	국가외교와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	중국 해방 전후 미국, 영국, 이태리와 같은 국가와의 외교 및 대외관계에서 발생했던 자산귀환문제 관련 당안과 자료 제공	선교를 위한 교회건축과 귀국 후 발생한 해당 토지와 건축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
기타서비스	참고자료 편찬 서비스	원활한 관리와 이용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각 도시건설 당안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 서비스의 일종	기존의 장서목록, 서가목록 및 온라인목록과 같은 기본적인 검색도구 외에 성씨목록, 전체시 각 단위 평면도색인 등과 같은 전문검색도구의 편찬

5) 민국경제회복시기(1949.10~1952), 첫번째 오개년계획시기(1953~1957 일명 '일오계획(一五規劃)'), 대약진과 국민경제조정시기(1958~1965),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역사전환 및 국민경제조정시기(1977~1984)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일오계획’ 기간에 국가의 156항 중점건설에 발맞추어 150개 도시건설계획을 진행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까지 도시계획기구의 수립, 학술연구의 개최, 전문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편 1952년 2월 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이 내린 “한 개 도시의 설계자료는 반드시 해당 도시건설국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시는 국가적 차원의 도시건설계획과 함께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건국초기부터 도시건설 과정 중 생성된 각 기록물들은 국가의 정책적 지시에 의하여 해당도시에 도시건설 당안관을 건립하여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건설계획은 1960년대의 사회혼란기로 좌절되었다가 1978년 전국의 각 중대형 도시와 중점적 건설대상의 소규모도시에 반드시 2-3년 내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총체적 계획을 제정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1979년 도시건설업무강화를 위하여 도시건설총국(城市建設總局)을 성립, 각 성 시 자치구에도 상응하는 도시건설기구를 건립하였다. 이후 도시건설 계획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병행되었다.

### 3. 2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전개

1950년대 망아되어 1960년대 발전기, 1970년대 침체기, 1980년대 회복기 및 1990년대 재발전기로 전개된 20세기 중국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 사업을 주요 사건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전국 각지에 중대형의 주요도시를 건설하려는 국가적 정책과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이 시작되었고, 1954년 중앙 기록물 관리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당안국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59년 12월 국가당안국은 따련(大連)에서 개최된 ‘전국기술당안업무회의(全國技術黨案工作會議)’에서 중요도시와 지역의 기록물 관리업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집중적으로 일괄 관리토록 하였다.

1960년 12월 국가당안국은 하얼빈에서 개최된 ‘동북 및 화북도시 기본건설 당안업무회의(東北·華北城市基本建設黨案工作會議)’를 통하여 도시건설 기록물의 수집범위와 관리강화 방법문제 연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적하였다. 1961년에 전국 42개의 도시가 도시건설 기록물에 대한 시험적 관리에 착수하였으나 1966년에 시발되어 1977년까지 근 12년 계속된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혼란기로 인하여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79년 12월 국가당안국으로 부터 각급 지도자에게 ‘도시 기본건설 당안 관리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하달되면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은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1980년 국가에서 중점건설 항목 당안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정식으로 중대형도시에 도시건설 당안관을 건립하여 도시건설 당안을 집중적으로 통일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8월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제출된 <도시건설 당안관 임시통칙>에서 ‘도시기본건설 당안관(城市基本建設黨案)’을 ‘도시건설 당안관(城市建設黨案館)’으로 개칭하였다.<sup>6)</sup> 이어 1986년 9월 전국적으로 최초



의 ‘도시건설 당안업무회의’가 개최되었고, ‘도시 및 농촌건설 당안(城鄉建設檔案)’에 관한 계통적 설명이 있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는 못하였다. 1987년 2월 국가당안국은 도시건설관련 당안관의 명칭을 ‘도시건설 당안관’으로 확정하였고, 11월 도시 및 농촌건설 환경부(城鄉建設環境部)와 국가당안국이 연합하여 <도시건설 당안관리 임시규정(城市建設檔案管理暫行規定)>을 공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당안법과 <도시계획법>의 철저한 실행으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 사업은 재발전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완전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체계가 세워지고, 각종 규정의 제정, 인적자원의 배치, 예산의 확보, 설비의 구비, 풍부한 장서라는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한편 이시기에 도시건설 당안관은 과학기술설립단위에 소속되었고, 1987년에 제정된 기존의 <도시건설 당안관리 임시규정>이 폐기되고 대신 기본적으로 당안법과 당안법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삼으면서 시정부 차원에서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업무 관련 행정법규와 규장 등이 제정되고 있다.<sup>7)</sup>

### 3. 3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성과

20세기 중대형의 도시건설과 함께 추진한

중국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급의 각종 당안관과 도시건설 당안관 및 인적자원의 수치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2단계 당안관의 유형에 속하는 성, 시, 자치구의 성급당안관(부록 2 참조)의 경우 1956년부터 북경, 광둥, 하남, 산서, 감숙, 허북, 천진, 안휘, 흑룡강, 상해 등의 성과 시에 당안관 준비처를 건립, 1958년 4월 북경시당안관이 처음으로 정식 개편되면서 각 성과 시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30개의 성과 시 자치구 중 1960년대까지 16곳에 건립되었던 것이 1965년에는 이미 29곳에 설치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전국 30곳에 모두 건립되었다. 2003년 현재 31개의 각성 자치구 직할시당안국(관)과 16개의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부성급당안국(관)<sup>8)</sup>이 설치되어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檔案局, 2003).

제3단계의 현급당안관의 경우 1958년 5월 河南省 襄城縣에 최초의 현급당안관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에 전국적으로 1,200개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1960년까지 1,509개관, 1965년에 2,000개관, 1980년대 말에는 2,488개관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國家檔案局, 1993, 168). 전국 각급 각종의 당안관의 경우 1985년말 이미 3,004개관이 설치되었으며, 1988년 말에는 3,350개, 1990년 말에는 3,522

6) 1987년에 명칭의 통일이 확정되나 일부과거의 습관과 영향으로 이후에도 ‘도시건설당안’을 ‘도시 및 농촌 건설당안’ 또는 ‘도시기본건설당안’ 등이라고도 불렀다.  
 7) 1988년의 <기본건설 항목 당안자료 관리 임시규정>과 1992년의 <건설항목당안 감사 시행령>, 1997년의 <도시건설 당안귀속 및 등급 임시시행령>과 <국가 중점건설항목 당안관리 등록법>, 2003년의 <북경시 도시건설당안 관리방법>과 <천진시 도시건설당안 관리규정> 등이 계속적으로 제정 공포되고 있다.  
 8) 31개의 각성 자치구 직할시당안국(관)은 北京, 天津, 河北, 山西, 內蒙, 遼寧, 吉林, 黑龍江, 上海, 江蘇, 浙江, 安徽, 福建, 江西, 山東, 河南, 湖北, 湖南, 廣東, 廣西, 海南, 重慶, 四川, 貴州, 雲南, 西藏, 陝西, 甘肅, 青海, 寧夏, 新疆에 설치되어 있으며, 16개의 계획단열시 및 부성급당안국은 大連, 寧波, 廈門, 青島, 深圳, 沈陽, 長春, 合爾濱, 南京, 杭州, 濟南, 武漢, 廣州, 成都, 西安 및 新疆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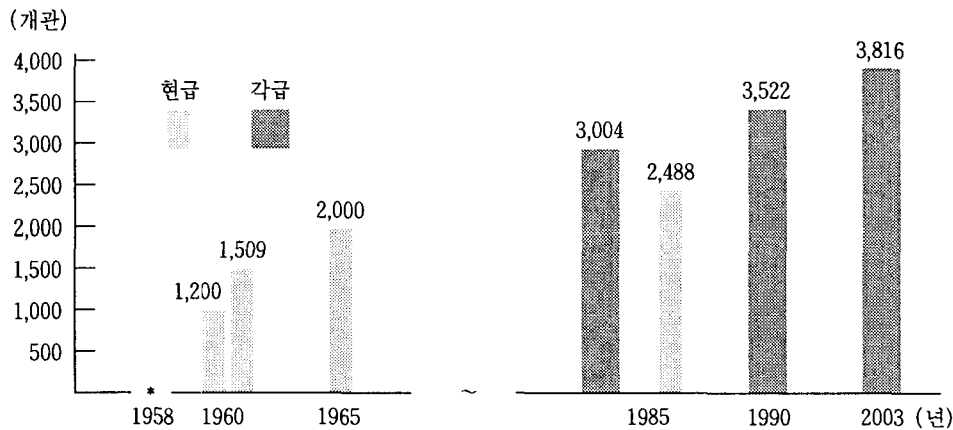
개관, 1997년에는 3,645개관이었으며, 2003년 현재 3,816개관에 이르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檔案局, 2003). 현금당안관과 각급의 각종 당안관의 전반적인 건립상황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1958년에 처음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현금당안관이 1960년대 중반까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칠오계획’ 이후 기록물 관리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각급의 각종 당안관이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도시건설 당안관의 경우 1992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30개 성, 자치구와 직할시 중 15곳의 성급 도시건설 당안관을 포함하여 408개의 도시에 도시건설 당안관이 그리고 800여개의 행정구와 현에 도시건설 당안관(실)이 건립되었다(廖龍波, 1999b, 269). 한편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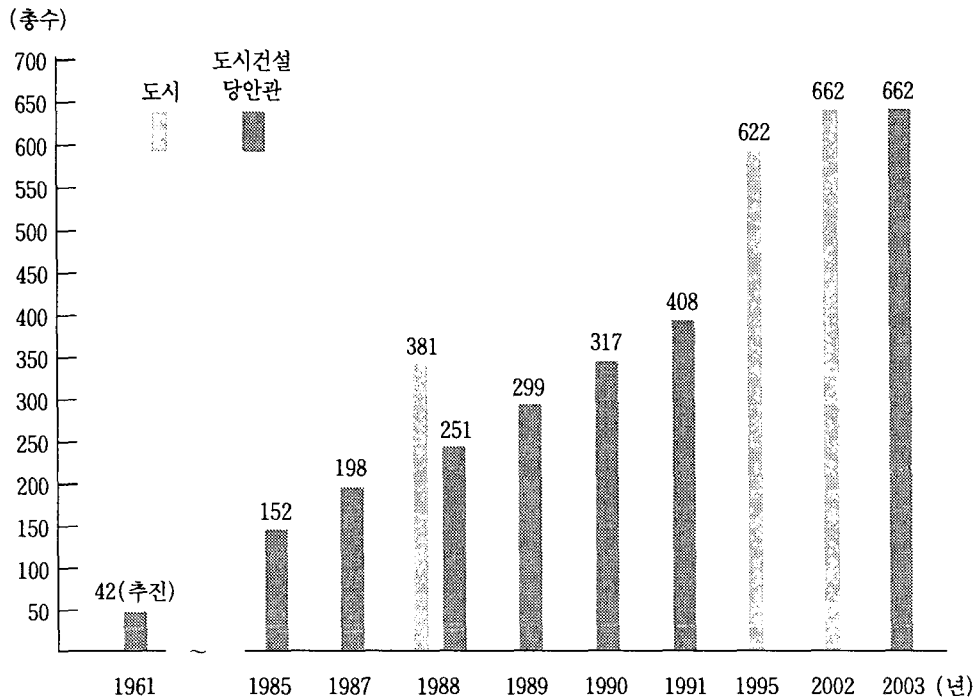
『中國統計年鑑』에 의하면 중국의 총 도시는 662곳으로 2003년 현재 중국 전역의 중대형 도시에 모두 도시건설 당안관이 건립되었으며, 구와 현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건설 당안관(실)은 약 1,500여개관(실)에 이르고 있다.<sup>9)</sup> 그중 1960년대초반의 국부적 추진상황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중대형의 도시건설의 계획 및 추진과 더불어 건설된 도시와 도시건설 당안관의 건립상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 개발 초기단계시기인 1960년 초반에 단지 42개의 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1980년 중반까지 152개관이던 것이 1991년에는 408개의 도시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다가 1970년대까지 사회 대혼란의 공백기 이후 1980년대 회복기와 1990년대 재개



<그림 1> 현금당안관과 각급의 각종 당안관 개관 수

9) 中國檔案出版社의 『中國檔案年鑑』, 중국의 中國年鑑編輯部和 일본의 中國研究所의 『中國年鑑』, 國家統計局的 『中國統計年鑑』등 최근의 어느 년감에도 도시건설당안관에 대한 통계사항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 2003년 현재의 수치현황은 국가당안국, 도시건설당안협회(城建檔案協會) 및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과의 전화통화로 실시한 것이다.



〈그림 2〉 중국의 도시와 도시건설 당안관의 수

받기를 맞이하여 매우 활발하게 도시건설이 계획 및 추진됨과 더불어 도시건설 당안관 또한 활발하게 건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도시건설 기록물관리 사업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일례로 호남성의 경우를 살펴 보더라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부도시에 만 도시건설 당안관이 있었으나, 1985년 당시全省의 6개 省轄市와 15개의 地轄市의 전체 21개도시에 도시건설 당안관이 모두 건설되었다(國家檔案局三處, 1987, 168).

한편 전체 도시 수와 비교하여 볼 때 1988년 당시 총 381개의 도시 중 251개의 도시에 도시건설 당안관이 설립되어 전체 대비 약 66%의 성과를 보였다면, 현재 총 662개의 도

시에 모두 도시건설 당안관이 건립되어 전체 대비 100%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50년대부터 추진하여온 중대형 도시건설계획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을 전개하였기에 모든 중대형의 도시에 도시건설 당안관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건설 당안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에 대한 1992년의 통계에 의하면, 1991년 말까지 중국전역 400여개의 도시건설 당안관에 배치된 전체 인적자원은 총 4,079명으로 그중 전문대학이상 졸업자가 1,526명이며 중급이상의 전문 기술직은 640명에 이르고 있다(廖龍波, 1999b, 269-270). 당시 도시건설 당안관의 전체 인적자원대비 각 인적자원의 비율을 살

펴보면 전문대학이상졸업자가 37%, 전문기술직이 15.7%로 전체 인적자원 대비 전문인적자원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건설 당안관을 포함하여 현재 모든 당안관의 전문인적자원의 전체 인적자원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를 70~80%, 중급의 전문기술직을 60~70%로 배치하여 전체 인적자원 대비 전문인적자원이 최소 70%정도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실례로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의 경우 2003년 현재 총 95명의 인적자원 중 60%이상은 중급이상의 전문기술직무를 수행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檔案局, 2003).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각 도시건설 당안관에 배치된 총 인적자원수는 이전보다 감축되었으나<sup>10)</sup>, 전문 인적자원의 비율은 증가되었다. 이는 각 인적자원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이며, 전문기술직의 경우 현대적 설비와 자동화 기술의 적용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4. 북경시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

북경시의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은 전국 최대규모의 대표적 도시건설 당안관으로서 북경시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는 북경시도시건설 당안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북경시

당안관에서도 일부 소장관리되고 있다. 우선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北京市城建檔案館)은 1981년 5월29일에 정식으로 건축을 시작하여 1989년 12월에 낙성, 1990년 11월24일에 개관한 대표적인 성급 도시건설 당안관으로 시인민정부소속의 도시건설과기사업단위(城建科技事業單位)이다. 당안처, 업무작업실, 기술처리부문, 접대실, 열람실, 도화실(圖畫室), 진열청 및 행정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이크로폼장비, 사진기 및 영상기, 복사기와 고속복사기, 曬書장비, 소독 및 화학실험설비, 보수설비, 컴퓨터 등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소장상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관리, 건축설계 및 지면도, 지하시설 등 각방면의 당안 18만 5천권, 청사진 9만여장, 마이크로폼 백만장, 녹음테이프 및 영화필름 100여함, 모형도 약 백개, 그외 도시건설자료 약 5천책 등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시의 영구 및 장기보존할 도시건설관련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도시계획관리, 도시측량, 도시건설관리, 도시건축설계, 공공시설공사, 도시관선공사, 교통운수공사, 수리방재공사, 민간건축공사, 조경녹화, 명승고적지, 자치방법공사 등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2,000여마일의 전체 시의 지하관선 출량 기록물의 당안화를 완성하였다. 즉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은 기본적으로 북경지역 도시건설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 관리 및 이용토록 하는 전

10) 실제 전국 최대규모의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은 과거 전체 인적자원수가 175명이었으나, 현재 95명으로 감축하였다. 기타 도시건설당안관도 모두 총 인적자원수를 40~50% 정도 감축하여 현재 비교적 규모가 큰 상해시도시건설당안관의 경우 55명 정도, 천진시도시건설당안관의 45명 정도의 인적자원이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 규모의 도시건설당안관의 경우 3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구와 현의 소규모 도시건설당안실의 경우 5~6명을 배치하고 있다.

문기관으로서 중국 전국 최대규모의 현대적 도시건설 당안관이다.

북경시당안관은 1958년 개관한 최초의 성급 당안관으로서 북경시에서 생성된 각종 당안을 집중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곳으로 1996년부터 대외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130여만권의 당안과 자료 약 3만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소장사항을 살펴보면 민국정부시기(1911~1949)의 당안 80여만권 외에 1911년부터 1928년까지의 北洋政府時期的 京都市政公所와 京師警察廳의 일부 당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의 당안 등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도시건설관련 기록물 또한 일부 소장하고 있으며, 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北京市檔案館 編, 1996, 330-339; 556).

- ① 북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1949년부터 1955년까지의 당안
- ② 북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1955년부터 1958년까지의 당안
- ③ 북경시도시계획관리국의 1953년부터 1969년까지의 당안
- ④ 북경시도시건설위원회의 1957년부터 1968년까지의 당안
- ⑤ 북경시건축공사국(北京市建築工程局)의 1953년부터 1968년까지의 당안
- ⑥ 북경시건축재료공업공사의 1955년부터 1965년까지의 당안
- ⑦ 1954년부터 1991년까지의 도시건설 관련 당안 132책

이상의 소장 당안들의 연대를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당안이다. 이는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

이 1990년에 정식으로 개관하였기에 그 이전의 것을 우선 북경시당안관에 소장 관리하다가 북경시도시건설당안관이 개관되면서 이전할 때 일부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미루어 각 지역의 도시건설 당안관 외의 일부 해당지역의 당안관에도 도시건설 관련 기록물들이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1960년 3월에 개관한 종합당안관 重慶市檔案館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중경시의 정치, 경제, 교통, 문화, 사회풍속 및 도시건설 등 발전연혁을 반영하는 도시건설 당안들을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북경시의 도시건설기록물 관리 상황을 고찰한 결과, 각 지역에 도시건설 당안관이 건립되어 해당지역 도시건설 당안들을 일률적으로 수집 보관 정리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성급 또는 현급 당안관에도 도시건설 기록물들이 수집보관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모든 지역에 도시건설 당안관이 건립된 것은 아니기에, 도시건설 당안관(실)이 건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당안관에 도시건설 기록물들이 소장, 관리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20세기 중국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사업은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의 도시건설계획을 추진함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병행하여 왔다.

둘째, 중국의 당안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당안국과 각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지도체계 하에서 성급, 현급 및 각급의 각종 당안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건설 당안관은 성격상 전문당안관에 분류된다.

셋째, 도시건설 당안은 기본건설 당안 외에 해당지역의 도시건설관련 기록물(계획, 측량, 건설)과 해당도시관련 기록물(행정, 공공시설, 교통, 조경, 환경보호, 관련연구 등)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도시건설 당안관은 해당 지역의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 건설, 관리 및 사후 유지보수관련 당안을 대상으로 수집, 조직, 관리 및 이용의 기본적 봉사와 검사, 감사, 교류 및 교육 등의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도시건설관련 서비스 외에도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서비스 및 국가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한편 필요할 때면 도시건설계통 부속단위의 전문당안관(실)과 협력하여 봉사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건설 당안은 전문적인 도시건설 당안관 외에도 해당지역의 성급 또는 시급 당안관에도 수집, 보관, 관리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기대되는 과제 및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에 제정된 <도시건설 당안관리 임시규정> 대신 市 인민정부 차원에서의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업무관련 행정법규와 규장 등이 계속적으로 제정 공포되고 있으나,

통일된 <도시건설당안법(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둘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규모 도시건설계획 사업<sup>11)</sup>, 건축업과 기본건설체제의 개혁 및 부동산 전면조사와 같은 새로운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 더불어 관련 기록물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당안화될 것이므로 관련 기록물 관리업무의 갱신 및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 도시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생성된 도시건설기록물을 주로 수집 관리하였기에 고건축당안 등 해당 도시 및 지역관련 고전 및 역사당안이 적절히 수집되어 도시건설 관련 중요당안의 하나로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도시건설계획, 행정수도이전계획, 뉴타운건설계획 등 부단히 도시건설을 계획 및 실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시건설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의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도정에 토목건축관련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는 정도가 우리 나라의 현주소이므로 무엇보다도 도시건설계획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도시건설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 각 전문분야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도시계획 및 건설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 전문분야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제정 및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 또한 필요하다.

11) 이에 대한 새로운 당안실의 건설은 계획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도시건설 당안관으로 송부하여 총괄적으로 수집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분야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방안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자료관 내에 해당 지역 건설관련 전문 자료실(부서)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의 실행방안으로 최근의 뉴타운 건설 및 신도시 건설과 같이 새로운 도시건설이 계획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건설 및 행정부서와의 긴밀

한 협력 하에 각급 공공기관의 자료관이 주체가 되어 생성되는 각종 관련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 도시 및 지역의 경우 전국 광역시부터 우선적으로 해당 도시관리관련 현행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 및 관리를 시행토록 한다.

## 참 고 문 헌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1999년 1월 29일 제정)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1999년 12월 7일 제정)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8호)〉(1999년 12월 30일 제정)
-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1987년 제정; 1996년 수정)
- 國家檔案局 編. 1993. 『中國檔案事業概述』. 北京: 檔案出版社.
- 國家檔案局三處 編. 1987. 『全國科技檔案工作會議文件匯編』. 北京: 檔案出版社.
- 國家統計局 編. 1988; 1995; 2002.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來新夏. 1991. 『圖書館學情報學檔案學簡明辭典』.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北京市檔案館 編. 1996. 『北京市檔案館指南』.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 北京市檔案局과 北京市檔案館. [online] [cited 2003. 11. 22] <<http://www.bjma.org.cn/>>
- 『城建檔案』. [online][cited 2003. 11. 22] <<http://www.chinacsw.com/hezuo/cjda/default/htm>>
- 『城鄉建設』. [online][cited 2003. 11. 22] <<http://www.cin.gov.cn/cxjs/default.htm>>
- 『연합뉴스』. [online][cited 2003. 8. 10] <<http://www3.yonhapnews.net/>>
- 寥龍波. 1999a. 中國國家檔案局簡介. 『國立臺灣商專學報』, 52: 31-36.
- 寥龍波. 1999b. 中國大陸的城建檔案事業. 『國立臺灣商專學報』, 52: 261-275.
- 劉耿生. 1999. 檔案與清檔研究. 『錢穆先生紀念館館刊』, 7: 29-42.
- 韋慶遠. 1996. 簡介大陸地區的檔案事業和民國史編纂的關係. 『圖書與資訊學刊』, 18: 16-24.
- 自貢市建設委員會. 1991. 『自貢市城市建設志』.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 張之君. 1988. 中共의檔案工作 下. 『共黨問題研究』, 14卷 3期: 64-70.
- 鄭會欣. 1991. 中國國內對民國檔案的保管·出版和研究情況: 中國第二歷史檔案館簡介. 『香港中國近代史學會會刊』, 4·5期: 119-123.
- 中國檔案出版社. 1997. 『中國檔案年鑑』.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 中國年鑑編輯部 編輯. 1995. 『中國年鑑』. 北京: 中國年鑑社.
- 中國研究所 編. 1985~2003. 『中國年鑑』. 東京: 大修館書店, 新評論, 倉士社.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中國百科年鑑編輯部 編. 1980. 『1980 中國百科年鑑』.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編. 1992. 『中國大百科全書: 建築·園林·城市規劃』.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編. 1993. 『中國大百科全書: 圖書館學·情報學·檔案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建設部. [online][cited 2003. 11. 22]  
<<http://www.cin.gov.cn/>>
- 中華人民共和國國家檔案局. [online][cited 2003. 11. 22]  
<<http://www.saac.gov.cn/>>
- 한미경. 1996. 中國의 書誌學 研究 및 教育. 『書誌學研究』, 12: 271-317.
- 한상완 외저. 2002. 『한국공공기관 기록보존 관리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서울: 한국기록 관리학회·한국기록관리협회.



<부록 1> 제1단계 당안관

당 안 관 명	소재지	당 안 관 명	소재지	당 안 관 명	소재지
國家氣象局檔案館	北京市	冶金工業部檔案館	河北省三河縣燕郊鎮	中國第二歷史檔案館	南京市
國家測繪檔案資料館	北京市			中國第一歷史檔案館	北京市
國家海洋局海洋檔案館	天津市	外交部檔案館	北京市	中央檔案館	北京市
機械電子工業部檔案館	西安市	全國地質檔案館	北京市	航空檔案館	北京市
新華社照片檔案館	北京市	中國北方工業總公司檔案館	北京市		

<부록 2> 제2단계 당안관

당 안 관 명	소재지	성립시기	당 안 관 명	소재지	성립시기
甘肅省檔案館	蘭州市	1959.2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館	烏魯木齊市	1972.3
江西省檔案館	南昌市	1962.10	安徽省檔案館	合肥市	1959.10
江蘇省檔案館	南京市	1985	寧夏回族自治區檔案館	銀川市	1958.12
廣東省檔案館	廣州市	1958.11	遼寧省檔案館	瀋陽市	1958.10
廣西壯族自治區檔案館	南寧市	1960.8	雲南省檔案館	昆明市	1975.3
貴州省檔案館	貴陽市	1960.10	浙江省檔案館	杭州市	1959
吉林省檔案館	長春市	1959.10	天津市檔案館	천진시	1964.1
內蒙古自治區檔案館	呼和浩特市	1959.4	青海省檔案館	西寧市	1958
福建省檔案館	福州市	1959.10	河南省檔案館	鄭州市	1956.8
北京市檔案館	북경시	1958.4	河北省檔案館	石家庄	1959.6
四川省檔案館	成都市	1966.4	陝西省檔案館	西安市	1958.10
山東省檔案館	濟南市	1963.1	海南省檔案館	海口市	1988.7
山西省檔案館	太原市	1960.10	湖南省檔案館	長沙市	1974.3
上海市檔案館	상해시	1959.12	湖北省檔案館	武漢市	1959.6
西藏自治區檔案館	拉薩市	1980.12	黑龍江省檔案館	哈爾濱市	1964.2